

줄리 당신 바느질은 할 줄 알아요?
헤르만 나는 내일 다시 나가보려고.
줄리 내일 또요?
헤르만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얘기하자. 오늘은 피곤하네.

헤르만은 줄리를 한 번 포옹하고 자신의 소파로 향한다. 줄리는 그런 헤르만을 저지하며 불러 세운다.

줄리 그럼 이건 어떡하고요.
헤르만 응? 당신이 바느질을 잘 하잖아.
줄리 제가 언제요.
헤르만 왜, 우리 집에서 구멍 난 양말이나 셔츠 같은 것들은 당신이 잘 기워줬잖아.
줄리 그거하고 이건 다르죠, 여보. 우리 집에서 나온 건 다 우리 가족들이 입던 거고, 이건 얼굴도 모르는 남이 입던 건데. 게다가 속옷이잖아요.
그레테 전 들어가 있을게요.

어중간한 위치에서 눈치를 보던 그레테가 기회를 잡아 얼른 방으로 들어간다.

헤르만 여보, 나도 일 할 거야.
줄리 그래도 난 이런 건 못하겠어.
헤르만 그건 당신이 밖에서 일을 안 해봐서 그래. 밖에 나가서 일하면 이보다 더 어려운 일들이 널 렸어. (사이) 모든 여자들이 당신처럼 집안일만 하는게 아니야!
줄리 몰라. 난 싫어!
헤르만 나한테 소리 지르지 마.
줄리 소리 지른 거 아니야 여보. (테이블로 기댄다.)

거실을 서성이던 헤르만은 의자를 끌어다가 줄리 옆에 붙어 앉는다. 줄리를 끌어안고 쓰다듬는다. 줄리는 특히 거부하지 않지만 받아들이지도 않는다.

헤르만 창문 열어줄까? (창문을 열고 돌아와서 다시 끌어안는다.) 당신한테 힘든 일인 거 알아. 내가 좀 도와줄까? 반진고리 어디에 있어?

헤르만은 열심히 반진고리를 찾아다닌다. 정작 반진고리는 줄리 옆 작은 서랍에 있다. 줄리가 반진고리를 테이블 위에 꺼내놓자 헤르만이 멋쩍어하며 속옷 몇 개를 들고 돌아온다.

헤르만 어떻게 하는 거야 여보?

줄리는 반진고리를 열려는 헤르만을 말리고 테이블 한 균데로 밀어놓는다. 헤르만에게 기댄다.

줄리 이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헤르만은 말없이 줄리를 안고 토닥인다.

줄리 너무 보고 싶어, 우리 아들...

헤르만 말했잖아. 얼마 안 있어서 돌아올 거라고. 지금은 당신한테 너무 위험해.

줄리 그런지 2주나 지났어요. 내 아들이에요. 아무리 겉모습이 바뀌었어도 그 안에 있는 건 내 아들이라고요.

줄리가 기침하기 시작한다. 오랫동안 이어지다가 멈추지만 줄리는 여전히 테이블에 손을 짚고 힘들어한다. 헤르만은 줄리에게 질문하듯 “약? 약?” 하다가 부엌으로 뛰어간다. 곧이어 헤르만의 비명이 들린다. 잠시 소리가 없더니 헤르만이 성난 채로 뒤통거리며 부엌에서 나온다. 손에는 깨진 접시조각이 들려있다.

헤르만 이거 당신이 그런 거야?

줄리 응?

헤르만 부엌에 접시가 깨져있던데.

줄리 아, 그거... 아까 설거지 중에..

헤르만 설거지 중에?

줄리 그레테가 들어와서...

헤르만 그레테?

사이. 헤르만은 줄리의 말을 듣고 잠시 생각하더니 자신의 소파로 가 걸터앉는다. 엉덩이를 쭉 밀어 넣어 소파에 파묻힌다. 사이.

헤르만 그레테.

그레테가 바로 나온다.

그레테 네, 아빠! (사이, 헤르만이 아무 반응이 없자 불안해진다.) 네, 아빠.

헤르만 넌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 하는 거라곤 예쁘장하게 웃 입고, 실컷 자고, 살림 조금 돋다가 바이올린이나 켜는 게 다지. 여보, 약 어디에 있어?

줄리 우리 방에 아마 있을 거예요.

헤르만이 힘겹게 자리에서 일어나자 그레테가 부축하려든다. 헤르만은 그런 그레테를 쳐낸다. 그리고 천천히 안방으로 들어간다. 들어가는 동안 그레테와 줄리는 움직이지 못한다.

그레테는 눈물을 참고 있다. 헤르만이 들어가자 줄리는 그레테의 기분을 풀어주기 위해 접근한다.

줄리 그레테, 괜찮아. 엄마랑 같이 산책할까?
그레테 (침묵)
줄리 왜. 아빠는 모르실 거야. 잘 때는 누가 업어 가도 모르시잖아.
그레테 엄마, 나 할 말 있어.
줄리 (사이) 뭔데?
그레테 나 아까 밖에 나갔다 온 거 아니야.
줄리 그럼?
그레테 오빠 방 청소하고 나온 거란 말이야.

줄리는 미안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며 그레테를 껴안는다.

줄리 왜 아까는 그렇게 말 안 했어. 왜.
그레테 몰라. 엄마가 슬퍼할까봐 그런 건데. 엄마는.

줄리가 얼른 안방으로 가 문을 두드린다.

줄리 여보, 얼른 나와 봐요 여보.
헤르만 이것 좀 도와줘.

줄리는 방으로 들어가 헤르만을 얹지로 끌고 나온다. 헤르만은 약을 바르다 말고 줄리에게 끌려나온다. 그레테는 자기 방으로 돌아가려는 참이다.

줄리 그레테! 이리 와봐. 이리 와보라고.

줄리에 의해 셋이 모여 선다.

줄리 여보. 그레테가 그동안 그레고르 방을 청소하고 있었대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기특하죠!

사이.

헤르만 그러냐? 그래... 잘했다. 잘했어.

헤르만은 얇은 미소를 짓고는 방으로 가기 위해 돌아선다. 그레테의 표정이 편안해진다.

4.

밤, 그레테의 방.

그레테 12월 21일. 16일째. 오빠의 방을 청소하려면 우선 방문 손잡이를 천천히 돌려야 한다. 그러면 안에서 뭔가 빠르게 사삭거리는 소리가 들리다가 잠잠해지는데 그때 들어가면 오빠는